

# 웃는 돌고래 상괭이 ‘수난시대’ 끝날까

### 2015년부터 전국 해안에서 매년 1100여 폐사체 발견 해수부, 보호대책 추진... 고래연구센터 등과 실태조사

제주에서 끊임없이 사체가 발견되고 있는 ‘상괭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서식실태 조사, 해양포유류 흔적자감 어구 보급, 구조·치료기관 운영 등의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웃는 돌고래’로 불리는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소형 돌고래로 한국과 홍콩, 일본 등 아시아 동부 연안에만 서식하는 종이다.

상괭이는 지난 2004년 개체수가 3만6000여마리에 달하던 것이 어업활동에 의한 혼획, 연안개발, 환경오염에 의한 서식지 훼손 등으로 2016년에는 1만7000마리로 개체수가 급감했다.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100여마리의 상괭이 폐사가 확인됐는데, 이중 909마리가 혼획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도 2019년 44마리, 지난해 55마리의 상괭이 사체가 처리됐으며, 올해도 2월 2일 현재 14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상괭이의 생태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래연구센터와 해양환경공단을 통해 서해 남부와 경남 연안에서 서식 실태 조사를 벌인다. 또 국립수산물

6300만원을 투입, 근해안간방 어선을 중심으로 ‘해양포유류 흔적자감 어구’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혼획·좌초된 상괭이의 신속한 구조·치료·방류를 위해 전국 11개소에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며, 어업인 대상으로 상괭이 혼획 시 신고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상괭이가 혼획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바다를 누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선박 음주 운항 60대 집유

술을 마신 채 배를 몰았다가 암초와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킨 선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찬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와 해상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내려졌다.

15t급 연안복합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3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선박을 출항, 강정항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선박이 파괴돼 42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송은범기자



“군고구마 사세요” 쌀쌀한 날씨를 보인 2일 제주버스터미널 앞에서 한 시민이 겨울철 별미인 군고구마를 사고 있다. 이상근기자

## 단독주택 화재로 전소

1일 오후 10시44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주택에서 화재난으로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소방서 추산 778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2일 표선119센터에 따르면 거주자인 주택 임차인 A(49)씨가 사고 당일 오후 9시30분쯤 주택 마루에 설치된 화목난로에 장작을 넣고 1시간 뒤인 10시30분쯤 외출, 이 사이에 화재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외출 후 20분 만에 귀가해 화염을 목격하고 상수도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고, 이어 119가 출동해 장비 10대와 인력 26명을 투입해 오후 11시27분쯤 화재를 진화했다.

이 화재로 주택이 전소하고 냉장고, 에어컨, TV, 가구 등이 소실되며 재산피해를 냈다. 백국탁기자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21년 만에 마무리

### 지난 1999년 첫 삽... 총 사업비 1549억 투입 공원 “제주 돌문화와 민속문화 알리기 주력”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이 21년 만에 마무리됐다.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설문대할방전시관 준공을 끝으로 21년 만에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총 사업비 1549억원을 들여 돌박물관, 오백장군갤러리, 설문대할방전시관 등을 포함한 제주돌문화공원과 교래자연휴양림을 조성한 것이다.

2단계로 나눠 진행된 이 사업은 1999년 첫 삽을 뜬 이후 21년 만에 마무리됐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올해 ‘돌문화에서 조상의 삶의 애환과 지혜를 찾자’는 주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전시공간을 정비하는 한편 ‘돌, 흙, 나무, 쇠, 물’의 5가지 주제로 돌문화공원의 이미지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또 돌문화공원의 인문학적, 자연생태적 가치를 활용해 코로나 블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관광객의 치유 장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아울러 제주 돌문화 이해와 상징성 제고를 위한 학술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외형적으로는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종료됐지만, 제주 돌문화와 민속문화 등을 널리 알리는 일은 이제 출발선상”이라며 “돌문화공원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시설보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근기자

## 지난해 미해결 체불 임금 60억원

### 전체 체불임금 162억원 61%인 99억원만 해결돼 건설업종이 전체의 40%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 중 40%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체불 임금 162억원 중 61.37%인 99억4200만원은 이후 근로자 등에게 지급돼 해결됐지만 37.28%인 60억4000만원가량은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사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또 2억2000만원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체불 임금 사업장수는 1300여 곳으로 전년보다 10% 줄었다. 업

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의 39.5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6.02%로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역시 건설업이 전체 49.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제주자치도는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협력해 체불 임금 예방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에 대해선 근로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 제주도와 행정시, 산하기관은 선급금·기성금(공사 중간에도 공사가 이뤄진만큼 계산해서 주는 돈) 등의 계약제도를 활용해 관급공사·물품 구매 대금이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민기자

## SUV 전신주 부딪쳐 40대 운전자 부부 숨져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전신주와 부딪쳐 40대 부부가 숨졌다.

2일 경찰과 119 등에 따르면 1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에서 표선면 방면으로 가던 SUV가 도로 옆 전신주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차량을 운전하던 A(46)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

B(44)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직후 남원119센터가 현장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B(44)씨도 의식저하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이들을 서귀포의료원으로 긴급 이송했고,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모두 숨졌다. 백국탁기자

## 제자 강제추행 국제학교 외국인교사 사망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외국인 교사가 건강 때문에 잠시 교도소에서 풀려났다가 숨졌다.

2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모리셔스 국적의 외국인 교사 A(50)씨가 지난달 29일 제주도내 한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25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

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면서 다음날 풀려났다가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을 맡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어교육도시 한 국제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유치부 요가 수업 도중 5살 미만 원아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는 등 한달 사이 원아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 중국인 근로자 낙상사고

공사장에서 작업중이던 중국인 근로자가 낙상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노형동 한 공사장에서 A(48)씨가 작업 중 흙이

무너지면서 3m 가량 추락, 공사장 구조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 구급대 현장 도착 당시 A씨는 안면부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강민성기자

**그랜드보청기**

2021히트브랜드대상보청기부문수상

2021 히트브랜드 대상 1위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비중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NAVER에 그랜드보청기·O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방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상품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 신상품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향, 탐나는봉, 사랑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아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